【붙임1】 탐방프로그램 시나리오 모음집 제출 양식(한글파일)

주상절리를 찾아서

1. 목적 및 배경

○ 무등산 주상절리대 탐방을 통해 자연의 신비함과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의식을 기른다.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자연경관해설(○)
○ 프로그램명 : 주상절리를 찾아서
○ 대　　상 : 전 연령
○ 운영기간 : '20.1.1.(수) ~ 12.31.(목)
○ 운영형태 : 당일형, 2시간/1일
○ 장　　소 : 장불재, 입석대, 서석대
○ 주요내용 : 무등산 주상절리대 생성과정, 전설 등
○ 소요예산 : 3십만원
○ 참 가 비 : 무료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보도자료 제공(2회), 포스터, 배너 등 제작하여 SNS 및 주요입구에 게시
○ 참가자 접수 방법 : 국립공원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유선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보도자료 제공(10월, 1회), 페이스 북 홍보(4월~10월, 월1회)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 효과성 조사 : 프로그램 운영 전·후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 도출

첨부 1. 일정표
2.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3.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일정표>

시간		주요 내용	장소
10:00 ~ 10:10	10분	– 만남 및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 프로그램 및 주의사항 안내	장불재
		활동) 산행 전 안전체조	
10:10 ~ 10:30	20분	– 입석대 이야기 – 웅장한 입석대 – 무등산 주상절리대 형성과정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입석대
		활동) 무등산 주상절리대 관찰	
10:30 ~ 11:40	70분	– 서석대 이야기 – 서석의 수정병풍 – 서석대에서 만나는 풍경	서석대
		활동) 무등산 주상절리대 관찰	
11:40 ~ 11:50	10분	– 장불재 이야기 – 장불재 이름 유래 – 장불재 형성과정	장불재
		활동) 무등산 지질명소 미니앨범	
11:50 ~ 12:00	10분	– 소감 나누기 및 마무리	장불재
		활동) 소감 나누기	

〈단위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환경교육

주상절리를 찾아서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
소요시간	2시간
참가대상	전 연령
참가인원	10명/해설사 1명
작 성 자	자연환경해설사 남순주

활동목표	• 무등산 주상절리대 탐방을 통해 자연의 신비함과 소중함을 느낀다. • 주상절리대의 지질학적 가치를 알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의식을 기른다.
준비물	• 돋보기, 무등산 지질명소 미니앨범, 싸인펜 등
유의사항	• 돌멩이 하나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인사**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무등산국립공원 및 프로그램 소개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 **입석대 이야기** – 웅장한 입석대 – 무등산 주상절리대 형성과정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 **서석대 이야기** – 서석의 수정병풍 – 서석대에서 만나는 풍경 • **장불재 이야기** – 장불재 이름 유래 – 장불재 형성과정	10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활동내용 및 소감 나누기** • **주변정리 및 손 씻기**	10분

시나리오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년 21번째로 지정되어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다양한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등산(無等山)의 뜻은 비할 데 없이 높은 산,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입니다. 해발고도 1,187m의 무등산은 높이뿐만 아니라 비할 데 없이 웅장하고 등급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무등산의 풍경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네, 바로 주상절리대입니다. 중생대 백악기(약 8700만~8500만 년 전) 세 번의 화산폭발로 생겨난 무등산에는 다른 산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규모의 주상절리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무등산 주장절리대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입석대 이야기

무등산 대표경관 중 하나인 입석대는 해발고도 1,017m에 있는 돌기둥의 무리로 무등산 정상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주상절리 한 면이 1~2m, 높이 10~15m인 5~6각형의 돌기둥 30여 개가 하늘에 닿을 듯 수직으로 솟아 동서로 약 40m에 걸쳐 반달모양으로 웅장하게 둘러서 있습니다. 입석대 등 무등산의 주상절리대는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된 매우 뜨거운 화산재와 화산쇄설물이 쌓여 있다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녹은 뒤 차츰 식고 굳어져 석영안산암질응회암이라는 암석이 되었습니다. 쌓인 화산재는 표면부터 식으면서 수축되는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 5~6각형으로 굳으면서 수직으로 균열이 생겨 주상절리를 형성합니다. 주상절리대는 1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를 거쳐 땅 위로 노출되기 시작하고 긴 시간동안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풍화작용을 통해 지금의 아름다운 돌기둥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무등산은 높은 산지에 거대한 주상절리와 너덜지대가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4월 12일 137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입석(立石)은 선돌이라는 뜻으로 고대 선돌 숭배신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축단을 통해서 이곳이 가뭄이나 질병의 전염이 심할 때 지방 관리들이 하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제를 지내던 제천단(祭天壇)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석대 이야기

서석대는 해발고도 1,050~1,100m에 위치하며 무등산 정상의 남서쪽에 자리합니다. 입석대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된 서석대는 병풍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노을이 들 때 햇살에 반사되어 수정처럼 빛나기 때문에 서석의 수정병풍이라고도 합니다. 무등산을 예로부터 서석산이라 부른 것은 서석대의 이러한 빼어난 경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입석대에서 서석대로 오를 때 만나는 승천암은 주상절리가 누워있는 모습으로 자연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서석대를 오르는 동안 볼 수 있는 탁트인 경관은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특히 말 잔등을 닮은 백마능선에서 낙타의 혹을 닮은 낙타봉에 이르는 능선이 아름답습니다. 멀리로는 지리산과 월출산을, 가까이로는 동복호와 화순적벽, 광주호와 광주 도심의 전경이 한 눈에 보이며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장불재 이야기

장불재는 '긴 골짜기' 라는 뜻에서 장골이라 부르다가 옛날에 장불사가 있는 고개라는 뜻으로 장불치라 부르던 것이 지금의 장불재가 되었습니다. 약 5~6만년 전 주빙하기후 환경에서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급경사 지대의 흙과 암석이 무너지고 이동하는 풍화 작용을 거쳐 만들어진 평탄하고 완만한 평활사면지대입니다. 무등산 정상부의 주상절리들이 한눈에 보이는 장불재는 무등산 지형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또 장불재는 지형적으로 광주와 화순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이어서 예로부터 화순과 광주의 많은 주민들이 넘나들던 곳입니다.

마무리

무등산의 주상절리대는 해발고도 1,000m의 산지에 거대하게 형성되어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고 그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제주도 등 다른 지역의 주상절리대의 경우 바위의 크기가 수십cm인 것에 비하면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크기는 정말 웅장합니다. 오늘 무등산 주상절리대 탐방을 통해 자연의 신비함과 소중함에 대해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앞으로도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무등산의 주상절리대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되어 우리 후손들도 오래도록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